

지역 **메아리**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제설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제설 상황실 및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새벽 2시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된 관계자를 격려하고 조찬을 함께했다.

전날 아침부터 내린 눈이 2.3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빙판길을 이룬 가운데 고가도로, 지하차도 및 고갯길 등 중점 제설구간과 주요도로 373km에 대한 제설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보유중인 덤프 4대에외에 15톤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하고, 열수기 2개소 설치, '제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연일 제설 작업에 임해준 제설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절기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의료, 한울타리 행복의집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홈) 프로그램 참여자 1,23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질병과 관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요통 순이었으며 남자 79명, 여자 1,152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하게 프로그램 참여가 높았다.

또한 2017년도에는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는 물론 웃음치료, 손거울 만들기, 노래교실, 수세미 뜨기, 불소도포, 근력강화, 통증완화 마사지 및 테이핑 요법, 영양식이 조절 등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되게 실시하였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만족도는 98%, 참여율이 1,090명으로 89% 이상이 반복해서 계속 참여 하였고, 참여 후 자가 건강관리 실천율도 전년도 64%에서 67%로 향상됨을 볼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으로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은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서 운영해 주길 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삼례 수계리서 기공식 개최... 광역교통망·연구기관 인프라 구축

완주군 민선6기 15만 도농복합 자족 도시 초석을 다질 완주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12일 완주군은 삼례읍 수계리에서 '완주농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최정호 정무부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정성모 군의장, 출자회사 관계자,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체,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완주농공단지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 31만6,493㎡ 부지에 산업용지 24만 3,119㎡, 지원시설용지 1,560㎡, 공공시설용지 7만1,814㎡ 규모이며, 입주 종사자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수변공원도 조성된다.

완주군, (주)모아종합건설, (주)삼부종합건설이 총 4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으로 기술력과 민간재원을 활용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30여개 기업유치, 397명 일자리 창출, 143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완주농공단지는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으로 호남고속도로 삼례IC 및 익산 IC,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등 광역교통망과의 탁월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완주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1·2 일반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식품플러터의 산업단지와 KIST점북분원, 고온 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의 연구기관이 주변에 인접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중·소규모의 농공

단지가 조성됨으로서 기존 봉동지역의 배후 일반산업단지와 협력, 연계될 수 있는 큰 장점을 확보함은 물론, 전북 기업유치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심혈을 기울인 끝에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기공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행정타운 등 3대 대형 공약이 분개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이들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전북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완주군이 청렴한 공직문화정착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 완주군은 지난 11일 2017년도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도 완주군 법무감사팀의 주요업무 보고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영상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들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검토와 해당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위원장은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완주군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된 만큼 위촉했던 청렴완주의 위상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청렴군민감사관은 완주군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정책 중 하나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군정발견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등 군정 감시기능과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제도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11월 그동안 운영해오던 민간감사위원회와 권익보호관제도를 결합해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민원의 다방면적인 접근을 위해 모집절차를 거쳐 변호사, 주민대표,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20명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경문화 선도적 역할 다 할것"

김제문화원 기념행사 성료

김제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과,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김태용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과, 문화원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정선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김석준 김제문화원 부위원장의 문화비전 선언에 이어 김제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김병학씨, 정주현씨 등 7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문화원발전 및 김제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한 송규원씨, 한갑열씨가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창패를 수상했다.

김제문화원은 지난 50여년간 김제 향토사 발굴 조사를 통한 40여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문화강좌, 문화학교, 역사 문화재교육 등의 30여가지의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1,000여명의 문화회원들과 함께 지역문화나눔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은 "김제문



김제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과,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김태용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문화원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은 기념사에서 "김제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지키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지난 50년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제농경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은 "김제문

화원의 창립50주년의 축하 인사말을 전하며, 지난 50년 발자취를 발간 삼아 미래 100년을 기약하고 김제시가 품격있고 아름다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장은 문화학교에서 활동한 수강생의 서예, 한국화 작품등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특별교부세 44억1천만원 확보

김제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후천)가 2017년도에 역대 최대규모 특별교부세 44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그간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10억원 등 7건에 대하여 29억 1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12월 7일 하기전용 훈련장 조성사업 8억원 등 3건이 추가로 확정되어 2017년에만 총 10건에 44억 1천만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016년에 비교하여 9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김제시 역대 최대규모이며 특히 올해는 평양동계올림픽과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확정된 15억원 가운데 8억원은 김제 시민운동장 부근에 전북지역에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김제시 하기전용 훈련장 조성에 쓰일 예정으로

전국규모 하기경기 유치는 물론 전북 지역 하기운동선수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4억원은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한해파해를 입고 있는 용지면 반교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3억원엔 아간 불발 주·정차로 교통에 혼잡을 빚던 요촌택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위험을 해소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3건의 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토록 역대 최대규모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성과는 연초부터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하여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과 김종희 국회의원, 김제지역 출신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유종지미를 거둔 것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김제시로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협,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방문 쌀 전달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 임원단이 지난 8일 제주시에 위치한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을 방문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140만원을 기부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겨상이자 의인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제주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

시키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농협 임원단은 지난 6월에도 사랑의 쌀 500Kg을 기부한바 있으며 지난해 6월 협약 맺고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 협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체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취득 음급지자 오임 지역중 취득 레프팅 가이드 지역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취득 전)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	---